

## 한국청소년의 성평등의식 실태와 일반적 가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수미\*\*

이 연구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성평등의식 실태를 살펴보고 청소년들의 성평등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연구내용은 첫째, 전국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사회 청소년들의 성평등의식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청소년들의 일반적 가치 실태를 조사하여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단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0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소년가치관조사” 자료이며, 조사대상자는 전국 132개 학교에서 추출된 학생 11,240명이다. 분석 결과, 2006년 청소년들은 과거 청소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아졌으며, 특히 ‘가정내 공평한 가사분담’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지 정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우려되는 부분은 성평등 의식 등 일반적인 태도 항목에서 남녀간 성별 지체 현상이 매우 뚜렷하다는 점이다. 여학생의 성평등 의식이 남학생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차별감수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보편주의 가치관’, ‘자기 성취 가치관’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다. 이에 비해 남학생은 차별적 태도와 연결되는 ‘권력 가치’적 성향이 뚜렷하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의 교육내용에 의식의 다양한 수준에서의 성별격차를 완화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핵심단어:** 청소년, 성평등의식, 일반적 가치

### I. 서론

이 연구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성평등의식 실태를 살펴보고 청소년들의 성평등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 2005년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지원(KRF-2005-078-BS0004)을 받아서 수행되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smpark@kwidimail.re.kr

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뒷전에 밀려있던 분배의 문제,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문제, 평등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는 중이다. 최근 다시 불거진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적 정의에 대한 관심은 거스를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당면 문제라고 하겠다.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 예를 들어 경제위기라든지 저출산·고령화 문제라든지 새로운 사회적 위협의 증대라든지 하는 문제들을(윤홍식, 2005) 잘 극복하고 한 단계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정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성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일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이며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특히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이 우리 사회 미래를 열어 가는 데 중요하다는 데 착안하였다.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성평등의식이 어떠한지, 이들의 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연구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첫째, 2006년에 수행된 전국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사회 청소년들의 성평등의식 실태를 파악한다. 또한 이 결과를 동일한 측정도구로 조사한 2002년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한국사회 청소년들의 성평등의식 변화 추세도 파악한다. 둘째, 개인의 일반적 가치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적 태도, 차별적 태도와 연결된다는 선행연구(김혜숙, 2002; 박수미 외, 2004; Gaertner & Dovidio, 1986; Katz & Hass, 1988)에 터하여 청소년들의 일반적 가치 실태를 조사하여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단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청소년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인문계, 실업계 3학년까지의 학생이다. 개인의 성정체감(gender identity)은 유아기부터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하여 청소년기에 확립되는 자아정체감(ego identity)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게 되는 만큼, 청소년의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남녀평등의식의 문제는 발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뿐만 아니라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자아를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 속에서 규정하게 되며, 특히 청소년기의 성(gender)과 관련한 고정관념이나 태도가 그들의 사회 행동, 교육활동, 직업적 목표 등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Bigler, 1997; 김양희 외, 2002).

이 연구에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관건으로 사회의 성평등 수준 제고를 들고, 특히 청소년들의 성평

등의식 실태 파악 및 성평등의식 제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검토

### 1. 청소년의 성평등의식에 관한 연구

청소년과 관련하여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로서 그 동안 청소년의 성역할 태도, 성유형화, 성적체성 등과 관련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청소년의 성평등의식 실태를 조사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최근 들어 청소년의 성평등의식 실태에 대한 조사들이 축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청소년의 성평등의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검증된 조사도구의 개발이 한 몫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2002년에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GES-A)’ 도구를 개발하였다(김양희 외, 2002). 이 검사도구는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업생활, 사회문화생활의 네 가지 영역, 6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검사의 표준화 및 기준 마련을 위해 전국 거주 남녀 중·고등학생 3,1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KGES-A 연구팀에서는 20 문항으로 구성된 축약형 검사도구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검사도구의 개발에 따라 청소년의 성평등의식 실태에 대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으며, 이 도구와 그밖의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성평등의식실태에 대해 살펴본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희옥(2002)의 연구에서는 남녀공학과 비공학이라는 인위적인 학교환경이 학생들의 성평등의식과 성역할 정체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와 ‘한국형 성역할검사(정진경, 1989)’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여학생의 성평등의식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남학생의 성평등의식보다 높았다. 그리고 학교유형에 따라서도 성평등의식에 차이가 있었다. 즉 남학생의 경우 학교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비해 여학생의 경우 남녀공학과 비공학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공학의 여학생이 남녀공학의 여학생들보다 성평등의식이 높았다. 이 연구에선 가정생활, 직업생활, 교육생활, 사회문화생활에서 성평등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남학생들의 의식을 보다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방법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성평등 교육에서 성평등의

식의 제고 뿐만 아니라 실천력과 비판력을 신장시키는 측면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됨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성평등의식의 특성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중학교, 검사도구도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유희정(2002)의 연구에서는 강원도의 공무원, 일반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남녀평등의 현실과 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바 있으며, 성차별 사회화에 대해서 고등학생들이 성인들보다 더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다양한 계층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집단 간의 반응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청소년층의 범위가 고등학생으로 제한되고 축약 형태로 검사가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곽삼근 외, 2005).

황창연(2003)의 연구에서는 충남지역 청소년의 성평등의식 정도를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 검사를 활용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성별, 지역별, 학교급별, 학교유형별과 같은 배경요인에 따라 집단 간에 성평등의식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관련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충남지역 청소년의 성평등의식 실태와 차이점을 분석해 내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충남지역 청소년의 성평등의식 실태는 직업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문화생활 영역 순으로 성평등의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군단위지역보다 시단위 지역 학생들이,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유형별로는 여학교, 남녀공학, 남학교 학생들 순으로 성평등의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청소년 성평등의식 조사도구 개발에 힘입어 한국사회 청소년의 성평등의식에 대한 조사연구들이 부분적으로 이뤄졌지만, 전국 규모의 대표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아우르는 조사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 동일한 조사도구를 활용한 조사결과도 수년전에 이뤄진 데 그쳐 그 동안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실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일반적 가치와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사회심리학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개입되어 있는 여러 동기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Fiske(1998)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사회정보 처리 과정에 사람들이 가지는 동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과정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편견적으로 되도록 하거나 혹은 보다 객관적으로 되도록 한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의 인종 편견에 관한 이론들은 소수 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양가감정적 태도는 백인들이 가지는 개인주의적 가치(즉, 자립주의, 근면주의 혹은 형평에 대한 가치)와 인종 평등주의적 가치가 상충하는 데에서 오는 불편한 감정이나 불안한 감정에 의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Gaertner & Dovidio, 1986; Katz & Hass, 1988). 이에 따라 '형평' 가치가 특출해지면 소수집단을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등에 반대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반대로 '평등' 가치가 특출해지면 소수 집단에 보다 동조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또한, Mackie, Devos와 Smith(2000)는 사람들이 자신과 상반되는 가치(즉, 자유주의적 혹은 보수주의적)를 가지는 사람들을 외집단으로 규정하고, 다른 가치를 가지는 사람들과의 이러한 가치의 갈등이 그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분노 혹은 두려움)을 유발시켜 서로 대치하거나 혹은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 경향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한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가치들에 대해 Schwartz(1992)는 Rokeach(1973)의 가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10개의 차원들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자기-지도(self-direction, 즉,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것, 통제와 완성에 대한 가치), '보편주의(일반적 타인들에 대한 배려, 사회정의, 환경, 평등에의 관심)', '자비(가까운 타인에 대한 배려, 도움이 되는, 용서하는, 정직한)', '전통(전통에 대한 존중, 독실한)', '동조(복종, 자기 통제)', '자극(재미있는 생활, 변화있는 생활)', '쾌락(쾌락, 삶을 즐기기)', '성취(아심있는, 성공적인)', '권력(사회적 권력, 부, 사회적 인정)' 및 '안전(국가의 안전, 은혜에 보답, 소속감, 가족의 안전)'이다. Schwartz(1992)는 또한 이러한 차원들을 상위 두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기-고양(자극, 쾌락, 성취, 권력, 안전)' 대(對) '자기-초월(자기지도, 보편주의, 자비, 전통/동조)', 그리고 '변화에 개방적인(보편주의, 자기지도, 자극, 쾌락, 성취)' 대 '보수적(자비, 전통/동조, 안전, 권력)인' 태도가 그것이다. Schwartz(1992)는 이 가치 척도를 20개국(즉, 호주, 홍콩, 대만, 일본 등)의 사람들에게 실시하여 본 결과, 문화에 상관없이 비슷한 차원의 가치들이 얻어졌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김혜숙, 2002; 박수미외, 2004)에 따르면, 평등 및 사회정의를 중시하는 보편주의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보다 긍정적 태도와 소수 집단을 위한 정책에 대한 지지 태도를 가지게 한다고 한다. 그러나 권력 가치는 소수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이 연구들은 보편주의 가치는 소수 집단에 대한 일반적 긍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이나 성평등고용법과 같은 소수 집단을 위한 구체적 정책 도입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어 이 연구에 중요한 실질적 의미를 부여해 준다.

김혜숙(2002)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치들이 소수 집단(예컨대, 북한 사람, 여성)에 대한 태도나 이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태도에 일관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즉, 평등이나 사회정의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보편주의 가치는 북한 사람과의 낮은 사회적 거리감(즉, 친밀한 인간관계 의도), 대북지원 정책이나 민간교류 정책에 대한 찬성 태도, 지역감정의 원인은 정치인 때문이라는 지각 및 성역할 평등지지 태도를 예언해 주었다. 이와는 반대로 권력 동기는 북한 사람과의 보다 높은 사회적 거리감,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나 민간교류정책에 대한 반대 태도, 지역감정의 원인은 호남사람 및 영남사람의 성격 때문이라는 지각 및 성역할 평등 반대 태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해 주었다.

박수미 외(2004)의 연구에서도 일반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조사'에서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이 연구에선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 가치가 소수 집단들을 위한 여러 정책에 대한 태도와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편주의 가치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양성고용평등제'와 같은 제도에 찬성하는 태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권력가치는 '정년연장론'에 대한 찬성 태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지도 및 성취 가치는 '장애인 고용할당제'에 대한 찬성의 태도와 연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한 대로, 평등 및 사회정의를 중시하는 보편주의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보다 긍정적 태도와 소수 집단을 위한 정책에 대한 지지 태도를 가지게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권력 가치는 소수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었다.

보편주의 가치와 권력 가치가 각각 소수 집단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여러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가치 교육이 중요해 질 수 있음을 지적해 준다. 즉, 사람들이 소수 집단에 대한 보다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소수 집단을 위한 정책을 수용하여 사회통합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보편주의적 가치를 고양하도록 하고 권위주의적 가치를 지양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사회정의나 평등을 신봉하는 경향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자유나 개인의 성취 등을 지향하는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의 교육이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과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보편주의 정신을 충분히 고취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 준다.

이와 같이 개인의 (성)평등의식이 그들이 지닌 일반적 가치관과 연관되어 있

다는 연구결과들이 축적되고 있지만, 이를 청소년들에게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결과들의 시사점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치관 형성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평등의식과 일반적 가치관과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 Ⅲ. 자료 및 조사대상 특성

#### 1. 자료

이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0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소년가치관조사” 자료이다. 이 조사의 조사규모는 전국 132개 학교에서 학생 약 13,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조사의 모집단은 11-18세에 속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표본추출을 위한 기초 자료는 2005년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하였고 표본추출 단위는 선정된 학교에서 각 학년별로 1개의 학급을 선정하여 모든 학생을 조사하였다. 표본추출 결과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690개 학교에서 1.6%에 해당하는 132개 학교를 추출하였고 학년 당 1개 학급을 조사대상으로 한 결과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가정할 경우 약 12,775명이 조사대상 학생으로 선정되었다<sup>1)</sup>. 이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응답 내용 등이 분석에 유효한 11,240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설문지의 항목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설문 항목은 ‘개인 및 가족사항’, ‘가족관계’, ‘가족관’,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성교육’, ‘정책’, ‘성평등의식’, ‘일반 가치관’ 이렇게 10개 항목이다. 전체 설문지는 59개 문항, 109개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표본추출방법은 다단계집락표본추출방법이다. 즉 1단계로 학교를 추출하고 추출된 학교에서 학급을 추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전국의 학교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촌)과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로 층화하여 각 층에서 조사대상 학교를 선정하였다. 132개 표본 학교의 각 층별 배분은 층의 학급수에 비례되되 상대적으로 학급수가 많은 초등학교는 0.8의 가중치를 주었고 학급수가 적은 실업계고등학교는 1.2의 가중치로 학교수를 배정하였다.

## 2. 조사대상 특성

조사대상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전체 조사 대상자 11,240명 가운데 남학생은 5,859명, 52.1%이며 여학생은 5,381명, 47.9%이다. 전체 학생의 16.9%인 1,902명이 초등학교 5-6학년생이고 42.3%, 4,755명

<표 1> 조사대상학생의 개인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내 용	도수(백분율)
지역	대도시	4,940(43.9)
	중소도시	4,950(44.0)
	농촌	1,359(12.1)
성별	남자	5,859(52.1)
	여자	5,381(47.9)
학교급	초등학교	1,902(16.9)
	중학교	4,755(42.3)
	고등학교(인문계)	3,633(32.3)
	고등학교(실업계)	961(8.5)
학교특성	남학교	1,882(16.7)
	여학교	2,142(19.0)
	남녀공학	7,225(64.2)
부모 생존 여부	모두 살아 계신다	10,764(95.9)
	아버지만 살아 계신다	134(1.2)
	어머니만 살아 계신다	293(2.6)
	모두 안계신다	38(0.3)
부모 결혼 상태	유배우	9,737(90.9)
	이혼, 사별	974(9.1)
부모 취업상태	두 분 모두 일을 하신다	6,997(62.6)
	아버지만 일 하신다	3,390(30.4)
	어머니만 일 하신다	507(4.6)
	두 분 모두 일을 안하신다	271(2.4)
학생의 주 양육자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8,220(73.1)
	어머니	1,559(13.9)
	아버지	191(1.7)
	친할머니(외할머니)	1,035(9.2)
	친할아버지(외할아버지)	46(0.4)
	형제자매	32(0.3)
	이웃	22(0.2)
	도우미 아주머니	30(0.3)
	기타	112(1.0)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이다	216(1.9)
	잘 사는 편이다	1,538(13.7)
	보통이다	7,229(64.3)
	못사는 편이다	1,655(14.7)
	매우 못사는 편이다	164(1.5)
	모르겠다	434(3.9)

은 중학생, 나머지 40.8%, 4,594명은 고등학생이다. 고등학생의 79%는 인문계고등학생이며 실업계고등학생은 21%이다. 조사대상 학생의 63.6%인 7,134명은 두 자녀 가정의 자녀이고 19.4%인 2,176명은 세 자녀 가정의 자녀, 나머지 12.6%인 1,417명이 한 자녀 가정의 자녀이다. 조사대상 학생의 95.9%인 10,764명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조사대상 학생의 62.6%인 6,997명이 맞벌이가정의 자녀이며 30.4%인 3,390명은 아버지 홀벌이 가정의 자녀이다. 또한 학생의 9.2%인 1,035명은 주로 외할머니나 친할머니의 보살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분석결과

### 1.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 실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11,240명의 성평등의식을 살펴 보기 위해서 성평등의식 관련 10문항을 설문지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에 포함한 성평등의식 설문항은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GES-A)] 도구(김양희 외, 2002) 가운데 '가족영역'과 '직업영역'에 해당하는 10문항이다.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GES-A)] 도구는 청소년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젠더관련 이슈를 반영하는 13세-18세를 위한 청소년용 성평등의식검사 도구로서 2002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발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다<sup>2)</sup>. 이 10문항에 대해서 요인추출 모델 가운데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공통요인분석방법의 하나인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PAF)을 실시하였다.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직각회전 방식인 베리믹스 방식으로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여섯 번의 회전후 고유치(eigenvalue)가 1이 넘는 두 개의 요인이 나타났다. 먼저 가족영역의 5문항은 각각 '전통적·가부장적 가족관'과 '성평등 가족관'의 두 유형으로 요인 적재되었다. 다음으로 직업영역의 5문항은 각각 '성차별적 직업역할 및 관계'와 '성평등한 직업관'으로 요인 적재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2) 이 검사지는 크게 4개 영역으로 이뤄져 있는데, 그것은 '가정영역', '학교영역', '직업영역', '사회문화영역'이다. 4개 영역에 각각 20문항씩 구성되어 전체 검사지는 80문항이며 4개 영역에 각각 5문항씩 구성된 '축약형 질문지'도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축약형 질문지 가운데 '가정영역'과 '직업영역'의 10문항을 청소년가치관조사 설문지에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표 2〉 가족생활척도와 직업생활척도의 요인행렬

가족 영역	요인1 전통적·가부장적 가족관	요인2 성평등가족관
1) 남자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377	
2)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		.544
3)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 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627
4)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	.530	
5)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613
직업 영역	요인1 성차별적 직업역할 및 관계	요인2 성평등한 직업관
6)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629	
7)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604	
8) 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어울린다.	.448	
9) 여자가 판사·검사와 같이 남자들이 주로 맡았던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566
10)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82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집안일에서의 성 역할 구분에 매우 비판적이면서도 집안의 대를 잇는 문제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가사분담이나 가족내 의사결정에 대해서 매우 성평등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 역할에 대해 허용적이다. 직장 영역에서는 여성들의 진취적인 커리어 추구에 많은 지지를 보내면서도 허드렛일에는 여성이 더 적합하다는 태도도 상당 부분 발견된다. 결국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가정 영역과 직장 영역에서 성평등한 의식을 지니면서도 사안에 따라 매우 이질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의 가치판단적인 태도를 보여 주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들이 인식한 성차별적인 현실을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성평등의식은 사안에 따라 모순된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경향성을 드러낸다. 전반적으로 가정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해

서는 광범위한 동의를 보내는 반면, 직장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성분절적인 혹은 성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래 <표 3>의 문항별 평균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 의식이 강한 것으로 부호화된 것이다. 점수가 높은 상위 4순위까지의 문항이 모두 가정영역의 문항이다. 가장 성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이며 두 번째는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이다. 그밖에 세 번째로 성평등 의식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이며 그 다음이 “남자들이 부업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이다.

이에 비해 직장 영역의 문항에서는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문항과 “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어울린다” 문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찬성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은 가정영역에 비해 직장영역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전체 10문항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가정영역의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문항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된 2002년 청소년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더욱 주목할 만하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2006년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은 2002년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증가폭이 큰 항목은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문항과 그 다음으로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문항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현재 적어도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집안일에 남녀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매우 보편화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2002년 청소년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문항은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문항과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항으로 이 두 문항에서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즉 아들 존재의 필수성에 대한 대목과 직장에서의 남녀 역할에 대한 태도가 보수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의 경제불황과 저출산 현상에 기인한 결과가 아닐까 여겨진다. 경제위기 이후 장기화된 청년실업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청년실업에 대한 불안감은 남학생은 물론이려니와 여학생에게도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였다. 이 현상은 다시 미혼층의 증대와 결혼 연기로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 초저출산 현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제 불황 및 청년실업의 장기화는 불안정성을

〈표 3〉 청소년의 성평등관 2002년과 2006년 비교

(단위: %)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 안함	전혀 찬성 안함	평균
남자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2002 2.2	7.6	44.8	45.3	3.33
	2006 3.7	10.5	37.4	48.4	3.31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	2002 40.4	48.5	8.0	3.0	3.26
	2006 45.3	44.1	8.1	2.5	3.32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 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2002 44.3	45.8	7.4	2.0	3.31
	2006 53.1	37.9	7.1	2.0	3.42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	2002 5.8	31.3	38.0	24.6	2.81
	2006 12.0	34.6	38.0	15.3	2.56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2002 41.8	50.4	6.5	1.3	3.33
	2006 51.1	40.5	6.6	1.8	3.41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2002 2.0	16.7	48.0	33.2	3.12
	2006 3.5	17.5	43.3	35.6	3.11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	2002 7.3	22.3	47.9	22.2	2.84
	2006 11.0	25.4	37.6	26.0	2.79
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 직원이 하는 것이 어울린다	2002 3.8	20.0	41.8	34.3	3.06
	2006 6.7	21.2	36.8	35.3	3.01
여자가 판사·검사과 같이 남자들이 주로 맡았던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2002 39.6	48.4	9.2	2.8	3.25
	2006 45.8	39.7	10.8	3.7	3.28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02 2.3	8.5	44.3	44.7	3.31
	2006 6.6	14.2	37.6	41.6	3.14

주: 1) '매우 찬성함'=1점, '대체로 찬성함'=2점, '별로 찬성안함'=3점, '전혀 찬성안함'=4점으로 측정. 문항2), 문항3), 문항5), 문항9)는 역부호화하여 모든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 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면 됨.

일상화시키면서 노동시장의 과열 경쟁을 야기하고 개인으로 하여금 끊임없는 자기 투자를 유인하여 교육년한을 연장시켰다. 이런 불안 심리가 초저출산 사회의 위기의식과 결합되면서 직장영역에서의 보수화 및 가계계승을 위한 아들의 필수성 측면 부각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청소년들에게 가정영역에 비해 직장영역은 한 단계 뛰어넘은 먼 일이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 측면과 태도 측면 사이의 간격이 더 클 수도 있어서 이런 해석은 유보적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직장영역에 비해 가정영역에서의 영향을 많이 받을 시기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족의 일로 낭만화시켜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영역에서의 보수화 및 가계계승을 위한 아들의 필수성 측면이 한층 부각된 결과는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며 저출산 위기 상황과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현재 진

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홍보의 내용과 전략은 심각하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2. 청소년 성평등의식의 성별·학교급별·가족배경별 특성

특히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평등 설문문항 10개 모두에서 여학생의 성평등 의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가장 보수적인 두 문항 즉 가계계승을 위한 아들의 필요성 문항과 허드렛일은 여직원이 적합하다는 문항에서 성별 격차가 가장 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즉 성평등 의식의 성별 지체 현상은 그 자체로 문제를 지닌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는 데 사회전반의 성평등 의식 고취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청소년 시기부터 성평등 의식의 성별 지체 현상이 고착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무적인 일은 집안에서의 “성평등한 가사분담 및 의사결

<표 4> 청소년의 성별 성평등관 분포

구분	성별	평균	t값
남자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남학생	3.06(0.84)	-34.3***
	여학생	3.56(0.67)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	남학생	3.11(0.75)	-33.73***
	여학생	3.55(0.62)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 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남학생	3.22(0.75)	-32.60***
	여학생	3.64(0.59)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	남학생	2.29(0.85)	-34.93***
	여학생	2.86(0.84)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남학생	3.22(0.72)	-30.20***
	여학생	3.61(0.60)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남학생	2.86(0.79)	-35.50***
	여학생	3.38(0.74)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	남학생	2.53(0.91)	-30.70***
	여학생	3.06(0.93)	
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어울린다	남학생	2.73(0.88)	-34.75***
	여학생	3.31(0.85)	
여자가 판사·검사과 같이 남자들이 주로 맡았던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남학생	3.01(0.79)	-37.97***
	여학생	3.56(0.71)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학생	2.90(0.89)	-30.57***
	여학생	3.40(0.83)	

주: 1) '매우 찬성함'=1점, '대체로 찬성함'=2점, '별로 찬성안함'=3점, '전혀 찬성안함'=4점으로 측정. 문항2), 문항3), 문항5), 문항9)는 역부호화하여 모든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 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면 됨.

〈표 5〉 청소년의 학교급별 성평등관 분포

구분	학교급	평균	F값	ad hoc 분석 <sup>3)</sup>
남자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초등학교	3.14(0.88)	51.33***	중-고(실), 고(인)
	중학교	3.29(0.80)		초, 고(인)
	고등(인문)	3.42(0.74)		초, 중-고(실)
	고등(실업)	3.27(0.82)		중, 고(인)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	초등학교	3.34(0.79)	6.94***	중-고(실)
	중학교	3.30(0.74)		초-고(인)
	고등(인문)	3.36(0.66)		중-고(실)
	고등(실업)	3.26(0.76)		초-고(인)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 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초등학교	3.40(0.80)	2.38†	
	중학교	3.41(0.72)		
	고등(인문)	3.44(0.65)		
	고등(실업)	3.42(0.71)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	2.27(0.92)	143.45***	중-고(실), 고(인)
	중학교	2.53(0.88)		초, 고(인)
	고등(인문)	2.78(0.84)		초, 중-고(실)
	고등(실업)	2.49(0.88)		초, 고(인)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초등학교	3.34(0.78)	20.20***	고(인)
	중학교	3.39(0.71)		고(인)
	고등(인문)	3.48(0.62)		초-중-고(실)
	고등(실업)	3.36(0.69)		고(인)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초등학교	2.94(0.88)	44.41***	중, 고(인), 고(실)
	중학교	3.12(0.81)		초, 고(인), 고(실)
	고등(인문)	3.20(0.77)		초, 중, 고(실)
	고등(실업)	3.04(0.81)		초, 중, 고(인)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	초등학교	2.60(1.01)	52.26***	중-고(인)
	중학교	2.83(0.95)		초-고(실)
	고등(인문)	2.88(0.92)		초-고(실)
	고등(실업)	2.58(0.94)		중-고(인)
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어울린다	초등학교	2.73(0.96)	103.38***	중-고(실), 고(인)
	중학교	2.99(0.90)		초, 고(인)
	고등(인문)	3.18(0.86)		초, 중-고(실)
	고등(실업)	2.94(0.92)		초, 고(인)
여자가 판사·검사와 같이 남자들이 주로 맡았던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초등학교	3.13(0.90)	32.63***	중-고(실), 고(인)
	중학교	3.27(0.81)		초, 고(인)
	고등(인문)	3.36(0.73)		초, 중-고(실)
	고등(실업)	3.25(0.77)		초, 고(인)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초등학교	2.84(0.99)	121.38***	중-고(실), 고(인)
	중학교	3.12(0.90)		초, 고(인)
	고등(인문)	3.32(0.80)		초, 중-고(실)
	고등(실업)	3.12(0.88)		초, 고(인)

주: 1) '매우 찬성함' = 1점, '대체로 찬성함' = 2점, '별로 찬성안함' = 3점, '전혀 찬성안함' = 4점으로 측정. 문항2), 문항3), 문항5), 문항9)는 역부호화하여 모든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 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면 됨.

정권”에 대해서 성별 격차가 매우 작다는 사실이다. 특히 대부분의 성평등 의식 문항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증대하는 데 비해 성평등한 가사분담에 대해서는 학교급간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표 5> 참조). 다시 말해서 2006년 현재 청소년들은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집안에서 남녀의 역할이 따로 없다는 데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이다. 다만 이러한 성평등한 태도가 남학생의 경우엔 공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분절됨으로써 여학생과 남학생간에 태도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런 점을 해결하는 데에는 가정과 학교, 사회가 다 같이 협조해야 할 문제이지만 여기에서는 그 가운데 가정내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학생들에게 부모님이 집안에서 가정일을 어느 정도 공평하게 하고 계시는지 물어보았다. 조사결과, 전체 학생의 61.4% 가량이 부모님이 집안일을 공평하게 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물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님 가사분담정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평가를 하였다. 남학생의 62.5%가 부모님의 가사분담이 공평하게 이뤄진다고 응답한 반면 이와 같이 응답한 여학생의 비율은 53.8%이다.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모님의 가사분담정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sup>4)</sup>.

<표 6>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정 일 공평성 정도(성별/학교급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chi^2$
전체	17.0	41.4	31.0	10.7	100.0	10,449	
성별							
남자	18.5	44.0	28.8	8.7	100.0	5,432	94.6***
여자	15.3	38.5	33.4	12.8	100.0	5,019	
학교급구분							
초등학교	27.0	45.7	20.7	6.6	100.0	1,794	
중학교	16.9	43.9	30.6	8.5	100.0	4,434	411.1***
고등학교(인문계)	12.8	35.4	37.3	14.5	100.0	3,397	
고등학교(실업계)	12.6	42.9	29.4	15.1	100.0	833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p<0.05, \*\*p<0.01, \*\*\*p<0.001

3) ad hoc 분석은 ANOVA 테스트 결과 유의하게 나타난 집단별 차이가 어느 집단간에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표 5>의 첫 줄에 나온 ‘초등학교와 중-고(실), 고(인)’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실업계고등학생, 인문계고등학생간에 설문항목 응답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지만 중학생과 실업계고등학생간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4) 이와 같은 해석 역시 유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조사내용 가운데 조사대상학생의 부모 연령을 알 수 없으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모가사분담에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연령도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부모집단의 코호트효과가 발생한 결과일 수도 있다.

〈표 7〉 부모 가사분담 정도와 성평등의식의 상관관계

성평등 의식 항목	상관관계수 (유의도)
남자들이 부역일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080***
집, 땅과 같은 재산은 남편과 공동이름으로 한다	.034**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해야 한다	.000
집안 대를 잇기 위해 아들 있어야 한다	.132***
아내와 남편은 집안 모든 일에 똑같은 결정권 가져져야 한다	.040***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 남자만큼 내리지 못한다	.094***
남자는 가족 생계책임지기에 여자보다 월급 많이 받아야 한다	.068***
차심부름, 복사는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좋다	.084***
여자가 판사, 검사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055***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17***

주: † p<0.1, \* p<0.05, \*\* p<0.01, \*\*\* p<0.001

〈표 7〉은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과 부모의 가사분담 정도의 상관관계분석결과이다.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해야 한다’ 문항을 제외하고<sup>5)</sup> 모든 문항에서 부모의 가사분담이 공평할수록 성평등 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 내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일상생활의 사회화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성인들의 성평등 의식부터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사회 안팎에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청소년의 일반적 가치관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에 개입되어 있는 가치를 검토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실질적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소수 집단 사람들 및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데에 개입되어 있는 중요한 가치를 확인하면, 그들을 돕는 것이나 관련 정책이 그러한 가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설득 메시지를 만들어 사회 교육 또는 학교 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다(Clary, Snyder, Ridge, Miene & Haugen, 1994). 예를 들어, Clary 등(1994)은 사람들이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5)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해야 한다’ 문항의 경우 부모가사분담 정도가 매우 높은 학생과 매우 낮은 학생의 찬성 여부가 양극화되어서 상관관계계수가 무의미하게 나왔다. 다만 이 경우에도  $\chi^2=285^{***}$ 으로 집단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태도를 가지도록 설득하는 데 있어, 태도에 개입되어 있는 주요 가치 차원과 부합되는 측면을 강조하는 설득 메시지가 보다 효과적이었음을 보여 주었다. 보다 중요하게는 탈북자, 장애인, 여성 등 우리 사회의 소수 집단 사람에 대해 보다 긍정적 태도를 가지도록 영향을 미치는 가치를 고양시키는 교육을 어린이들에게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청소년들의 일반 가치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선행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일반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채택하였다.

Schwartz(1992)의 가치 척도 중 '보편주의 가치', '권력가치' 및 '자기지도 가치'를 반영하는 총 7개의 형용사를 사용하여 이 가치들을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질문지가 구성되었다. 이 세 가치들은 북한 사람에 대한 태도가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검토한 선행 연구들에서 편견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들로 나타난 가치들이다. 보편주의 가치 측정 문항들은 '더불어 사는 삶',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인간에 대한 사랑'의 3문항으로 이루어졌고, 권력가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힘'의 2문항, 그리고 자기지도 가치는 '자유로운 생활',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는 것'의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세 가지 가치는 각각의 응답 척도점수를 합한 값으로 설정하였다.

〈표 8〉,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들의 일반 가치관을 측정해 본 결과 청소년들이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권력 지향적 가치'였다. 반면 가장 미약한 일

〈표 8〉 청소년의 성별 일반적 가치관

구분	성별	평균	t값
더불어 사는 삶	남학생	1.52(0.65)	1.79†
	여학생	1.50(0.59)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남학생	1.57(0.71)	2.27*
	여학생	1.54(0.65)	
자유로운 생활	남학생	1.38(0.60)	3.45**
	여학생	1.35(0.54)	
인간에 대한 사랑	남학생	1.43(0.63)	5.48***
	여학생	1.37(0.56)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남학생	1.66(0.77)	5.00***
	여학생	1.59(0.68)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힘	남학생	2.19(0.99)	-2.53*
	여학생	2.24(0.91)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는 것	남학생	1.34(0.60)	5.65***
	여학생	1.27(0.51)	

주: † p<0.1, \* p<0.05, \*\* p<0.01, \*\*\* p<0.001

〈표 9〉 청소년의 학교급별 일반적 가치관

구분	학교급	평균	F값	ad hoc 분석
더불어 사는 삶	초등학교	1.38(0.59)	39.30***	중, 고(인)-고(실)
	중학교	1.51(0.63)		초, 고(인)-고(실)
	고등(인문)	1.56(0.61)		초, 중
	고등(실업)	1.56(0.63)		초, 중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초등학교	1.65(0.76)	16.45***	중-고(인)-고(실)
	중학교	1.56(0.68)		초
	고등(인문)	1.52(0.64)		초
	고등(실업)	1.55(0.67)		초
자유로운 생활	초등학교	1.31(0.56)	13.56***	중, 고(실)
	중학교	1.38(0.58)		초-고(인), 고(실)
	고등(인문)	1.36(0.53)		중, 고(실)
	고등(실업)	1.45(0.64)		초-고(인), 중
인간에 대한 사랑	초등학교	1.42(0.64)	2.54	
	중학교	1.39(0.60)		
	고등(인문)	1.41(0.58)		
	고등(실업)	1.42(0.60)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초등학교	1.57(0.72)	21.10***	중
	중학교	1.65(0.74)		초-고(인)-고(실)
	고등(인문)	1.62(0.71)		중
	고등(실업)	1.60(0.73)		중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힘	초등학교	2.30(1.03)	21.10***	초-중, 고(인)
	중학교	2.26(0.95)		고(인)-고(실)
	고등(인문)	2.17(0.90)		고(인)-고(실)
	고등(실업)	2.04(0.92)		초-중, 고(인)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는 것	초등학교	1.29(0.56)	1.25	
	중학교	1.31(0.58)		
	고등(인문)	1.30(0.53)		
	고등(실업)	1.32(0.58)		

주: † p<0.1, \* p<0.05, \*\* p<0.01, \*\*\* p<0.001

반 가치는 ‘자기지도 및 성취 가치’였다. ‘보편주의 가치’도 미약한 편으로 청소년기가 아직 확고한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생애 단계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결과이다. 특히 위에서 지적한 대로 보편주의 가치가 성평등 의식에 정(+)적 요인이 되고 권력 가치가 부(-)적 요인이 된다고 할 때, 우려되는 바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 가치관의 성별 통계치를 보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보편주의 가치, 자기지도 및 성취 가치가 높은 반면, 남학생은 권력 가치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힘'에서 여학생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학교급이 높아질 수록 보편주의 가치가 늘어나고 권력가치가 줄어드는 경향도 보이지 않는다. 즉 현재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보편주의 가치가 증대하고 권력가치가 감소하는 효과는 발견되지 않으며 이것은 성평등 의식을 포함한 보다 상위의 평등 의식 고취에 현재의 교육현장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0〉은 청소년의 일반적 가치관과 성평등의식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이다. 선행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보편주의 가치는 한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성평등의식과 정(+)의 관계를 보인다. 반면 권력 가치는 모든 성평등의식과 부(-)의 관계를 보이며, 자기 성취 가치는 약간의 편차를 보이지만 대체로 성평등의식과 정(+)의 관계를 보인다. 위에서 우려한 것처럼 여학생들이 보편주의 가치와 자기 성취 가치를 많이 지니고 있는 데 비해 남학생들이 권력 가치지향적인 성향은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해서 학교 현장이나 사회 현장에서 어떤 가치를 부각시켜야 할지를 시사해 준다.

보편주의 가치와 권력 가치가 각각 소수 집단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선행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가치 교육이 중요하다. 즉, 사람들이 소수 집단에 대한 보다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정책을 수용하여 사회통합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보편주의적 가치를 고양하도록 하고 권위주의적 가치를 지양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절실해진다.

〈표 10〉 청소년의 일반적 가치관과 성평등의식의 상관관계

성평등 의식 항목	보편적	권력지향	자기성취
	가치관	가치관	가치관
남자들이 부엌일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121***	-.084***	.100***
집, 땅과 같은 재산은 남편과 공동이름으로 한다	.193***	-.029**	.178***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 같이 해야 한다	.205***	-.036***	.175***
집안 대를 잇기 위해 아들 있어야 한다	-.065***	-.117***	-.056***
아내와 남편은 집안 모든 일에 똑같은 결정권 가져져야 한다	.226***	-.020*	.204***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 남자만큼 내리지 못한다	.065***	-.085***	.063***
남자는 가족 생계책임지기에 여자보다 월급 많이 받아야 한다	-.010	-.132***	-.008
차심부름, 복사는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좋다	.044***	-.107***	.039***
여자가 판사, 검사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161***	.005	.160***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038***	-.107***	.052***

주: † p<0.1, \* p<0.05, \*\* p<0.01, \*\*\* p<0.001

## V. 결론

시장노동으로 대표되는 ‘일’의 세계와 자신과 가족을 보살피고 다음 세대를 낳아서 키우는 ‘가족생활’ 영역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강한 지속·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두 영역이 조화를 이루며 유기적인 관계에 놓이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 한국 사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최근의 초저출산·초고령화 화두 속에서 한국사회 보살핌노동 영역은 그야말로 위기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 연구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가족영역 및 고용영역의 성평등 의식 실태와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가치관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 일반 가치관 등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가치관은 아직 형성단계에 있어서 하위 가치관 간의 간극도 크고 실제 행위와 태도 사이의 불일치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선 분석하지 않았지만 청소년가치관 조사결과에 나타난 청소년들의 가족·결혼·자녀에 대한 태도는 일정한 경향을 띠고 있는데 성인들의 태도와 형식적인 면에서 유사하면서도 훨씬 유연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관용성 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과거 청소년에 비해서 성평등 의식 수준도 높아졌다. 특히 가정 내 공평한 가사분담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지 정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우려되는 부분은 성평등 의식 등 일반적인 태도 항목에서 남녀간 성별 지체 현상이 매우 뚜렷하다는 점이다. 여학생의 성평등 의식이 남학생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차별감수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보편주의 가치관’, ‘자기 성취 가치관’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다. 이에 비해 남학생은 차별적 태도와 연결되는 ‘권력 가치’적 성향이 뚜렷하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의 교육내용에 의식의 다양한 수준에서의 성별 격차를 완화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가족관련 태도에서의 성별 격차는 그 자체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향후 가족형성 등 사회 재생산에도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최근의 저출산 위기 정국의 부작용으로서 의식 수준에서의 보수화 경향도 엿보였다.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 및 집행, 홍보 과정에서 개방적인 태도와 성평등한 의식 수준 제고를 분명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곽삼근 외 (2005) 《청소년 양성평등의식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여성가족부.
- 김양희·이수연·김혜영 (2002)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KGES-A)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김혜숙 (2002)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 35-50.
- 김희옥 (2002) “고등학교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성역할 정체감 비교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미 (2004)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여성부 (2005)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2006~2010)》.
- 유희정 (2002) 《남녀평등의식 확산방안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 윤홍식 (2005)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 노동 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57(4) 11월호.
- 정진경 (1989) 《한국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현황과 그 갈등 해소 방안을 위한 조사 연구》 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보고서.
- 황창연 (2003) 《충남지역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 실태와 의식향상 방안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Bigler, Rebecca S. (1997)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Measurement of Children’s Sex Typing”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53-69.
- Fiske, S. T. (1998) “Stereotyp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vol. 2: 357-411) New York: McGraw-Hill.
- Gaertner, S. L., & Dovidio, J. F. (1986) “The aversive form of racism”. In J. F. Dovidio Diego, CA: Academic and S. L. Gaertner(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pp. 61-89): San Press.
- Katz, I. (1960) “The functional approach to the study of attitudes.” *Public Opinion Quarterly* 24: 163-204.
- Katz, I., & Hass, R. G. (1988) “Racial ambivalence and value conflict:

- Correlational and priming studies of dual cognitive struc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893-905.
- Mackie, D. M., Devos, T., & Smith, E. R. (2000) “Intergroup emotions: Explaining offensive action tendencies in an intergroup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602-616.
- McDonald, P. (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430.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 1-65.

[2008. 9. 9 접수 | 2008. 12. 10 채택]

## **A Survey of Korean Youth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Its Relationship with General Value**

*Soomi Park*

This study explores Korean youth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in an attempt to search for a way to increase youth'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First, this study carries out a survey of youth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based on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a nationwide sample. Second,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key points needed to evaluate youth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in terms of youths' general values. The data used for this survey is from the survey on youths' values conducted by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2006 with a sample of 11,240 students from 132 schools nationwide. As a result, youths in 2006 had higher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than that of previous years(2002). Especially, the support for the fair share of domestic work in the house by youth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than the past. However, the survey of youths' values showed clear gender gaps in general attitudes of youths including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Female students not only had higher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than male students but also had higher levels of 'universal value' which would allow one to become sensitive to discrimination and 'self development and achievement value'. In contrast, male students scored high on 'power-oriented value' related to discriminatory attitudes. Therefore, the study recommends focusing on alleviating the gender gaps through school education and other various media education.

**Key Words:** youth,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general values